

‘사람의 통일’을 향하여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

그들과 마주앉아 ...

“압록강을 새벽 세시에 건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곧 후회가 되기 시작하였다. 내가 왜 이랬나... 이제 여기는 더이상 평양이 아니구나.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 차가운 물 속을 헤엄치며 나의 마음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90년대 들어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국적인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하였으나 워낙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어느 틈에 이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존재들이 되었다.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있었다. 그 구

절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도 큰 충격과 이상한 감정의 느낌을 체험하였다. 마치 주체사상을 처음 본 것과 같은 느낌 ...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새로운 사상과 세계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고 종교적인 북한 체제에서 살다가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혼자 던져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여 나왔든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한민족 분단의 비극을 또다른 측면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태어나 교육받고 살아왔던 북한 체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연을 가진 바로 우리들의 동포라는 것이었다.

“처음 김포공항에 내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너무도 발전하고 잘사는 나라였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잘사는 나라이니 사람들은 모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을 안할 것이고, 그래서 서로 싸움 일도 없을 것이니, 남한 사람들은 모두 아주 착하고 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남한에 들어는 왔으나 실제로 그들은 남한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워낙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많은 제한을 받으며 살아왔었기에 새로이 남한 생활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리 딸아이에게 아침마다 우유와 빵을 먹이고 싶어서 남한으로 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 길을 지나다가 구두 닦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런 일을 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물어보았다. 많은 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빠른 손놀림과 그 기술을 보면서 나는 자신감을 잃었다. 그것도 내가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남한에 내려와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 먼저 남한에 온 사람들이 포상금 많이 받아 잘살고 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

북한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한에서 그들의 고민은 하나다. 즉, ‘돈’에 대한 고민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자본주의체제에 제

대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남한은 그들에게 살기 좋고 편안하고 행복한 곳만은 아직 아니다. 북한에서 그들이 받았던 교육과 그들이 가진 기술은 남한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등의 소개를 받아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경쟁하지도 못한 채 곁돌다가 나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북에 두고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다. 나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부모님 시체를 붙잡고 울다가 깨는 꿈을 얼마나 많이 꾸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꿈은 그만 꿀 때도 된 것같지만 ...”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과 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피차 입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던, 일종의 터부가 있었다. 그것은 북에 두고온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다. 북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다. 나의 아들녀석과 같은 나이의 아들을 북에 두고온 탈북자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계속 이어야 할지 긴 침묵 속에 생각하여야만 하였다.

“지방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면 1,000만 명이 넘게 산다는 저 큰 도시에 지금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쓸쓸함이 가슴에 차 오른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를 위하여 통곡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북한 탈북자들의 대답은 거의 일정하였다. ‘외로움’이라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과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 마음을 다 열지 못하는 것같고, 어떤 형태로든 이용당할 것같은 걱정도 있어 사귀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북한 귀순자들끼리 사귀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라고 했다. 북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면 신뢰하기도 어렵고, 정치적 생각의 차이가 때로는 너무 커서 대화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북한 귀순자들의 적응이 가지는 의미

그러나 정말로 다행인 것은 많은 북한 귀순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도 바르다는 것이었다. 많은 귀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들이 다 있었구나 하는 감탄을 혼자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들은 매우 유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원형 같은 모습을 지니기도 하였고, 예의바르고 정중하였으며, 더 큰 가치와 명분을 위해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남한과 미래의 통일 조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해낸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서도 그러하듯이 남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 관리하는 법부터 자신의 앞가림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무척 힘겹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그런 상태가 아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북한 체제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런 북한 귀순자들의 건강한 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남한 사회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적응은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정신의학에서는 남북한과 같은 이질적인 체제 하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한 사회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것을 ‘문화 충격’ 보다는 더 크고 근본적인 ‘체제 충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새로이 신흥 종교 집단에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들이 겪는 변화와 충격은 일반

적으로 이민가서 겪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충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재사회화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땅의 통일’은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있어야 할 ‘사람의 통일’이다. 그것은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결국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 예멘, 베트남의 경우들은 ‘사람의 통일’이 얼마나 어렵고 더 복잡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관계는 워낙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웠다. ‘사람의 통일’이란 말 자체가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까지 있었다. 그러다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오는 북한 귀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민족 통일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탈북자 개인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예비 실험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 분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들은 앞으로 북한 출신 사람들이 통일 사회에서 가지게 될 양상을 많은 측면에서 시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와 이들에 대한 도움은 이제부터 있게 될 통일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통일 사회에 적응을 하여야 하는 것은 북한 출신 사람들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남한 출신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말로 통일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부터 제기되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남한의 일반 주민들이 가지는 북한 귀순자들에 대한 인상이다. 북한 귀순자들이 적응에 실패하여 일반 남한 주민들의 눈에 그들이 제대로 교육도 되어 있지 않고, 남한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한 정부의 생활 지원을 받아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아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하여 범죄나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귀순자들에 대한 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인상,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 그리고 남북한 통일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향후 통일 과정에 있어 예상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남한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러한 여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바로 북한 귀순자들의 남한에서의 적응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귀순자들의 남한 생활 적응은 반드시 성공적이 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와의 만남을 향하여

“남한에 와서 가장 크게 놀랐던 일이 있었다. 한번은 학교에서 다함께 자원 봉사를 나가게 되었다. 각자 맡은 분량의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일을 마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늘에 가서 쉬며 노는 것이었다. 그것은 북한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에서는 먼저 일을 마친 학생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일을 마치고는 함께 쉰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학생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같았다. 자기가 맡은 일을 빨리 끝내고 쉬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가족들과 함께 탈출하여 남한에

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학생의 눈빛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당황해 하는 기색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주의적인 공산체제와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각각 태어나 살아온 이 청소년들이 함께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이제 한반도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도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때, 그래서 정말로 한반도에서 ‘땅의 통일’에 이어 ‘사람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역사적 실험 앞에 우리 민족은 지금 서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 될 것이다. [2]